

패시브하우스 콘서트

냉난방비는 1/10로, 쾌적함은 두 배로,
유쾌한 패시브하우스 건축의 모든 것

열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패시브하우스 콘서트
배성호 저, 주택문화사, 2014

1. 일단 남향 배치에, 될 수 있으면 간결한 형태의 공간을 만든다.
2. 이왕 적용하는 단열재의 두께를 키우고, 이것을 건물 바깥으로 열고 없이 붙이
되 적절한 마감을 적용한다.
3. 취약한 창호의 성능을 높여주고, 집 전체의 기밀 처리를 확실히 한다.
4. 효율이 좋은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5. 여기에 축열과 외부차양을 고려하면 더욱 쾌적한 주택을 만들 수 있다.

이상은 저자가 간단하게 정리한 ‘패시브하우스’의 요소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생각해왔던 패시브하우스를 건축 전공자가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고 있다. 앞으로 그동안 꿈꾸어 왔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집을 꿈꿀 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을 패시브하우스라는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책

수년 전 ‘주거문화’를 주제로 하는 어려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문화가 구현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취향’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고, 개개인의 취향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 정리한 적이 있다. 결국 주택에 대한 취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택에 관한 좋은 정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을
패시브하우스라는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서술해 놓음으로써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을
주택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로 이끌고 있다.

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하다.

최근 아파트에 대한 그간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단독주택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한 대로 ‘그림 같은 집’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좋은 집’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많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공급자인 건설회사나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 건축주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부족한 ‘정보의 불균형’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패시브하우스’로 좀 더 세밀히 들어가 보면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축주에게 보통의 집으로서 ‘패시브하우스’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인 일반인의 ‘정보의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해 준다. 패시브하우스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서술해 놓음으로써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을 주택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로 이끌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왜 패시브하우스인가’로 ‘좋은 집’으로서의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두 번째 파트는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이해’로 단열, 열교, 열회수형 환기장치, 지열에 이르기까지 패시브하우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알기 쉬우면서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파트는 ‘성공적인 집 짓기를 위한 팁’으로 건축주로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다. 특히 싸고 좋은 것은 없으며,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싸고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축가에게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쉽게 정리되어 있다. 네 번째 파트인 ‘패시브하우스 순례’는 실제 지어진 4개의 패시브하우스를 사례로 들어 패시브하우스가 어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지어졌는지, 우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책의 표지에 그려진 집을 형상화한 픽토그램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 알아가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이다.

패시브적 접근이 ‘옵션’이 아닌 ‘스탠더드’가 되기를 기대

이제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이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기준과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패시브적인 접근보다는 설비에 의존한 액티브적인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이 아쉽다. 건물의 입면 대부분을 전면유리로 하고, 지열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부족한 냉난방 부하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건축물, 특히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패시브적인 접근이 ‘옵션’이 아닌 ‘스탠더드’가 되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데 <패시브하우스 콘서트>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